

반도체 수출, 10개월 만에 100억弗 붕괴... 15개월 상승세 '끝'

산업부, 2월 ICT 수출입 동향
 단가 하락·중국 부진에 여파 커
 ICT 전체 수출 역대 2월 중 2위
 휴대폰·PC 덕에 전체 수출 선방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4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또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밑돌았다. 메모리반도체의 수출 단가 하락을 비롯해 중국 시장 수출 부진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휴대폰·컴퓨터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며 전체 정보통신산업(ICT) 수출 실적은 역대 2월 가운데 2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2월 ICT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ICT 수출은 167억1000만 달러로 전년동월(165억1000만 달러)이 비해 1.2% 늘었다. 수입은 109억 달러로 전년동월(103억1000만 달러)보다 5.6% 늘어났다. 무역수지는 58억1000만 달러



국내의 한 반도체 생산공장 내부. /뉴시스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역대 2월 중 2번째로 높은 실적"이라며 "전월(-0.4%)의 감소세에서 반등한 것으로,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 회복세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96억5000만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3.0% 감소했다. 반도체 부문 수출이 월 10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그간의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난달 멈추며 16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HBM과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범용메모리반도체(NAND 등)의 단가 하락을 비롯해 낸드플래시 공정 전환으로 인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D램 단가는 지난해 4월 2.1달러에서 올해 2월 1.35달러로 하락했다. 낸드 단가도 4.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2월에 2.29달러까지 내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9.9%에 달했으나 11월 30.3%, 12월 31.1%, 올해 1월 7.7% 등으로 둔화 흐름을 보여 왔다. 이후 2월 들어 뒷걸음질했다.

디스플레이 수출 역시 14억7000만 달러로 5.1% 감소했다. 중국의 패널 공급 과잉 및 가전제품 수요 부진의 영향이 컸다.

이에 반해, 휴대폰은 1년 전보다 33.3% 늘어난 10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생산기지가 위치한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인도 등지에 부품 수

출이 늘어났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9억4000만 달러로 26.9% 늘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가 늘어난 데 힘입었다. 주변기기 내 보조기억장치 수출은 6억2000만 달러(+38.9%)로 14개월째 증가를 기록했다. 통신장비는 74.1% 증가한 3억4000만 달러였다.

수출 대상지별로 보면 베트남(+15.6%), 미국(+11.5%), 대만(+124.3%), 인도(+54.9%) 등에서 ICT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국(홍콩포함, -19.6%), 유럽연합(-7.6%), 일본(-5.7%) 등에서 감소했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대 중국 HBM 수출 제재 탓에 반도체 수출(-31.8%)이 전년동월 대비 급감했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9억 달러로 반도체(+5.2%), 컴퓨터·주변기기(+3.5%), 휴대폰(+8.6%)의 증가로 5.6%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협찬 안 밝혀'... SNS 뒷광고 2.2만건 적발

공정위, 인스타·블로그 등 집중 점검
 솟음 늘어 표시 위치·방식 부적절 다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배포

사회관계망(SNS)에서 이른바 '뒷광고' 의심 받는 사례 2만2000여 건이 당국에 적발됐다. 뒷광고란 기업에서 협찬(경제적 대가) 받은 사실을 명기하지 않은 채, 제품 사용 후기 형태로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 계정에 게시한 글·사진 등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유튜브 등의 SNS에서 후기 형태로 제작된 게시물 중 뒷광고 의심사례 2만2011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뒷광고 등의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심사지침에서는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그 위치·내용·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이 같은 후기 글을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서는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해 왔다.

지난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 이후 게시물 작성자 및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명령했고,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가 전체 건수에서 39.4%를 차지했다. 이어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26.5%, 부적절한 표현방식으로 표시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상품 분야에서 ▲보건·위생용품 ▲의류·섬유·신변용품 ▲식료품

및 기호품 등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서비스 분야에선 외식업종에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또 2024 사례 중엔 솟음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최근 주요 광고수단으로 떠오른 솟음 콘텐츠 영상제작자·광고주가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도 정확한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합리적 구매 선택권 보장을 위해 뒷광고에 대한 점검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게시물 작성자, 광고주 등의 법 준수 및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추천보증심사지침의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해 경제적 이해관계표시 안내서를 하반기 중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500대 기업 10곳 중 6곳 '컬처핏' 본다

(조직문화 적합성)

고용부, 지난해 하반기 채용동향 조사

국내 500대 기업 10곳 중 6곳은 신입직원 등의 채용 시 지원자와 조직문화 간 적합성을 따져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무 수행능력과는 별도로, 회사가 추구하는 바에 대해 공감하는 등 조직에서 잘 동작할 수 있는지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진행됐다.

응답 기업(387곳)의 61%는 선발과정에서 지원자와 조직문화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이른바 '컬처핏'을 확인하고 있었다. 컬처핏은 문화를 뜻하는 '컬처'(culture)와 적합을 뜻하는 '핏'(fit)의 합성어이다. 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

식이 조직의 문화와 얼마나 잘 맞는 지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곧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할지 확인하는 것이다. 직무수행능력과는 별개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하는 방식이 맞아 팀워크가 좋아지고 장기근속까지 이어진다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컬처핏을 확인하면서 '조직 및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69.5%)을 가장 높게 기대하고 있었다. 이어 '기존 구성원과의 협업 향상'(49.2%), '이직률 감소'(27.1%) 순으로 나타났다. 컬처핏을 평가하는 작업은 1차 면접(57.6%) 때 이뤄진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최종면접(36.9%), 서류전형(32.6%)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고, 별도의 컬처핏 단계를 운영하는 경우도 14%로 조사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구제역, 주말 새 영암 직교 무안도 뚫렸다

농식품부, 농가 주변 방역 등 분주

지난 14~15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4곳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데 이어 16일 무안 지역의 의심사례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이날 구제역 '심각단계'로 간주하는 시·군을 10곳으로 확대하고 백신접종 실시 및 원인 규명에 나섰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한우농장주는 지난 15일 영암군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백신접종 후 의심 증상(침 흘림)을 발견,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정밀검사 결과 16일 오전 소 3마리에서 구제역 양성이 검출됐다. 이

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올해 구제역 발생은 총 5건(영암 4건, 무안 1건)으로 늘었다.

중수본은 위기경보 '심각단계' 적용 지역을 무안군과 인접한 함평군, 신안군까지 확대했다. 총 10곳으로 영암과 무안, 나주,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목포, 함평, 신안이다. 소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사육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무안 발생농장에 대해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사육소 전부를 살처분할 예정이다.

국내 구제역은 지난 2023년 5월 이후 1년10개월 만에 다시 발생했다. 이번 확산은 지난 14일 전남 영암 소재의 한 한



지난 16일 오전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구제역 발생 소 사육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 통제선을 설치, 소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우농장(180마리 사육)에서 시작됐다. 이날까지 소 25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꼼꼼한 임상 예찰이 신속한 신고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도전하세요"

농식품부, 오늘부터 6월30일까지 접수

농림축산식품부가 '제10회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 등 10개 농식품 관계 기관과 함께 주관하는 이 대회는 4개 대학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경진대회는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을 통해 이달 17일부터 6월30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분야는 '팜맵 데이터 활용'과 '그외 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눠 접수를 받는다. 농식품부는 1차(서류), 2차(발표) 심

사를 거쳐 접수된 작품 중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13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총 상금은 6300만 원이다. 이번 10회 대회는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 기관 수가 증가(참여기관 9→10개, 후원대학 2→4개)했고, 시상 규모도 18점 6000만 원에서 19점 63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장과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정부는 입상작의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 IT 기술 교육,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작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잠자·영상·콘텐츠) 제작비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